

제 74 호

서기 2001년(단기4334년)10월 25일(수)발행
서기 1983년 9월 26일 창간
구독신청 전화 : (02)2244-3717
기사 및 원고전송팩스 : (02)2243-1073
E-Mail : andongkim9@korea.com



發行人：金相祚
編輯人：金命會
印刷人：宋載勳
發行處：安東金氏大宗會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徽慶洞 112-49
郵便番號：130-091
電話：(02)2244-3717
FAX：(02)2243-1073
홈페이지：come.to/andong

성금입금처 : 국민은행 356-01-0015-482 예금주 : 김 상 조(재실건축기금)

2001年 時享日程表

先 祖 位	享 祀 日	曜 日	墓(壇) 奉 安 所
忠烈公諱方慶 冷平國大夫人竹州朴氏	11月 23日 陰10月 9日午前 9時	金	慶北 安東市 祿轉面 竹松里 慶北 安東市 豐山邑 檜谷洞
文英公諱恂 馬韓國大夫人陽川許氏	11月 21日 陰10月 7日	水	京畿 安養市 東安區 冠陽洞 後山
文肅公諱永噉 上洛伯公諱縝 提學公諱益達	11月 20日 陰10月 6日	火	忠南 天安市 竝川面 佳田里
貞簡公諱永照 領三司事公諱藏 按廉使公諱士廉	11月 19日 陰10月 5日	月	忠北 清原郡 梧倉面 慕享里
掌令公諱玖 典書公諱成牧	11月 20日 陰10月初丁日	火	忠南 燕岐郡 全東面 美谷里
密直士使公諱七祐	11月 4日	日	京畿道 抱川郡 東面 社稷里
開城尹公諱七霖	10月 14日	日	京畿道 廣州郡 草月面 池月里
文溫公諱九容	11月 15日 陰10月 1日	木	京畿道 抱川郡 倉水面 伍佳里
都評議公諱九鼎	11月 18日 陰10月 4日	日	慶北 義城郡 義城邑 杏峴里
翼元公諱士衡	11月 20日 陰10月 6日	火	京畿道 楊平郡 楊西面 木旺里
掌令公諱長 書雲觀正公諱綵	11月 15日 陰10月 1日	木	京畿道 義旺市 浦一洞 廣谷里
安靖公諱九德	11月 18日 陰10月 4日	日	京畿道 驪州郡 南面 元承里
副使公諱天順	11月 21日 陰10月 7日	水	忠南 洪城郡 銀河面 大用里
判書公諱愼 大提學公諱承用 評理公諱厚 郡事公諱七陽	陰 3月 16日		全南 康津郡 鶴川面 土馬里南山
大護軍公諱儒	陰 3月 14日		全南 羅州郡 金川面 竹村里上村(玉峙)

※周知事項 : 忠烈公時享은 前日 齋室竣工式을 舉行하고 음10월 9일 從前과 같이 享事를 올리오니
前日 오셔서 竣工式에 參詣해 주시기를 望望하나이다.

음수재영정각이헐고무너짐에진실로중
건의게책을세웠음이요
風侵雨洗豈無修補之役
바람치고비가뿌려허술하니어찌보수의
공사가없겠는가
顧棟宇而老朽將急務於重建
돌아보건데집이노후하니장차중건을하
는것이급선무요
衆鳩首而合心立新楹於舊礎
모아합심하니옛날의주초에다새집을세
웠구나
初創構於曩昔何年
재사의창건은옛날의어느해였는가
今改築於民國辛巳
지금의중건은민국의신사년이로다
雲仍誠損招良工而施設
자손들이성금을모아훌륭한목수를불러
공사를시작했고
諸宗竭力選任司而監工
여러종친이힘을다하여임사를선정하고
감독에임하였구나
規制精緻聚四方之美材
규제는정교하고치밀하며좋은재목을사
방에서모았고
間架擴張趨八域之遠孫
간살은넓고크게하여팔도의자손들이모
이도록하였도다
并建影閣而益敬
영정각을함께세우니더욱공경스럽고
修補垣牆而蕭麗
담장까지말끔히단장하니한결깨끗하
구나
會宗族咸悅相樂
종친이함께모여모두가즐거워하고
勸友愛睦親謙恭
우애를권장하며친목과경공의예를지키
네

陵洞忠烈公齋舍上樑文

歷三朝而盡貞忠靖難定國
삼조에걸쳐충성을다했으며난을평정하
고나라를안정시켰구나
出則東征攘倭以安社稷之名將
나가면동쪽왜국을눌러사직을안정시
키는명장이되었고
入則百官統銜朝野昇平之賢相
入則百官統銜朝野昇平之賢相
드러오면백관을통솔하고조야를평화롭게
하는재상이되었다네
朝堂有旨於功存社稷
조정에서는사직을보존하는데공이크다
고말하였고
先王亦悔於帶勵難忘
先王亦悔於帶勵難忘
임금은공신의에우가소홀함을후회하였
다
荷潭公按節南來修墓改床
하담공께서는경상감사로부임하여묘역
을보수하고상석을고쳤으며
養眞翁聚穀息資置田省糞
양진옹께서는곡식을모아자본을늘려워
양진옹께서는곡식을모아자본을늘려워
토를준비하고잔을드렸네
齋閣頽毀苟有更新之謀
齋閣頽毀苟有更新之謀

崇祖之道至哉
조상을모시는도리가지극하고
教孫之方備矣
教孫之方備矣
자손을 가르치는방법도갖추었구나
茲將俚辭恭獻善頌
이에장차노래말을지어공손하게불러드
리읍니다
兒郎偉拋樑東
에루아들보들동쪽으로올려보자
朝日昇天入窓明
朝日昇天入窓明
아침햇살높이올라창문으로들어온다
千孫滿堂團樂席
千孫滿堂團樂席
많은자손마루가득단란한자리
傳世家風和氣融
傳世家風和氣融
내려오는가풍에화기도높네
兒郎偉拋樑西
에루아들보들서쪽으로올려보자
高山松林翠色迷
高山松林翠色迷
높은산의솔숲에는푸른색이가득하고
來頭後昆絃誦齋
來頭後昆絃誦齋
먼앞날후손들의글읽는자리

2面에 계속

宗親諸賢 謝過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호에 揭載한 陵洞忠烈公齋舍重建
上樑文에 忠信篤敬 傳家得聞之概要 다
음 器局弘大庭習詩禮之聲蔚이 누락되
었습니다. 이에 寬大하신 諒解를 仰
望하오며 다시 揭載하읍니다.

仍舊址而新成 宛然昔日遺蹟
옛자리들의지하여새롭게이루니
석일의자취가완연하고
知興弊而有數 憾然感慕無窮
흥폐는수가있음을알게되니
슬프게도감모의정이무궁하다
福州治北
안동옹부의북쪽자리요
鶴駕東南
학가산의동남쪽이로다

伏惟我忠烈大祖 羅王遠裔麗室柱石
업드려생각컨데충렬공큰라버지는
신라왕의왕손이요고려조의주석이라
忠信篤敬 傳家得聞之概要
충신하고독경함은 윗대의전통을듣고보
는훌륭한줄기요
器局弘大庭習詩禮之聲蔚
기국은 넓고 크며 시례는 가정에서
익혀 그 성망도 울연하다.
始出仕於弱冠二八高宗戊子
처음으로벼슬할때는약관십육세이니고
종무자년이요
終封郡於食邑上洛忠烈乙未
終封郡於食邑上洛忠烈乙未
마지막으로는식읍일천호로상낙에봉군
된충렬을미로다
銑萬甲而命元帥奈捷珍島
銑萬甲而命元帥奈捷珍島
일만의군사를거느리고원수의명을받아
진도의대첩을이루었고

1面에서 계속

良風繼開自成蹊
중은풍속잇고열어저절로길이되네
兒郎偉拋樑南
에루아들보를남쪽으로올려보자
洛水不息碧如藍
낙동강물쉬지않아남색같이푸르고나
長流千里溶溶去
천리를길게흘러용용히도가서
回回曲曲成深潭
구비구비돌때마다깊은쏘이루었네
兒郎偉拋樑北
에루아들보를北쪽으로올려보자
淸凉山靑太古色
청량산푸르러서옛날과다름없네
淑氣鐘精興旺地
숙기와정기모아흥왕할자리
千秋長保幽堂域
우리산소천추에기리보전하세
兒郎偉拋樑上
에루아들보를높이올려보자
明河在天星月郎
은하수는하늘에서밤기만하다
世道多舛孰可扶
읽으리진세상풍속누가바로잡을까
淳風良俗傳吾黨
맑은바람좋은풍속지켜보리라
兒郎偉拋下樑
에루아들보를아래로내려보자

軒外耕稼多沃野
현합밖엔농사지을기름진들판
風調雨順百穀豐
비바람고루내려백곡이풍년들면
時享祭需充庫舍
시향드릴제수는곳간에가득하리
伏願上樑之後 天時回泰地靈吉祥
업드려바라건데상랑한뒤로는
천시는희태하고지령은더욱좋아
益勉遺業 不墜忠信之道
조상유업더욱힘써 충신의도리를문어
뜨리지않고
善守剛常 無替孝悌之行
강상을잘지켜서 효제의행동을그대로
지켜보세
平去勿忘益修追遠之德
평소에는추원의덕을더욱닦아잊이를말
고
處恭能行自勉美俗之化
처신은공손해서미속을지키는데힘쓰고
능할지어라
愼忘拙辭敢唱善頌
에람스럽게도웅졸한가사를지어감히잘
불러지기바라나이다.

西紀二千一年辛巳閏四月十九日
忠烈公 二十四代孫都評議公二十代孫
昌會謹撰

공사 내역서

2001. 10. 15

공 사 명	면 적	금 액	비 고
1.제사본전 소슬대문	21.84평, 5.77평	138,500,000	건축후 증감시는 공사금액 변경됨
2.영정각	3.55평	17,000,000	"
3.영정각담장	길이29m×높이2.4m	5,400,000	현재 담장과 동일하게
4.마당축대	32m×높이1.7m	7,000,000	완공
5.배수로	길이55m×폭45cm	2,900,000	완공
6.화장실	한·양식복합	5,000,000	소변기2, 대변실2개
7.소슬대문담장 철거비	14m×190,000 340,000	3,000,000	현위치에서 2m 밖으로 낸다
공사금 합계		178,800,000	토지매입은 일반회계에서 한다.
공사금 지급합계		139,000,000	1차 계약금 : 15,000,000 2차 공사금 : 24,000,000 3차 공사금 : 60,000,000 4차 공사금 : 20,000,000 5차 공사금 : 20,000,000
공사금잔액		39,800,000	공사 준공후 지급

재 정 보 고 서

수 입 부		지 출 부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1. 고문 8명	5,830,000	1. 공사대금(5차)	139,000,000
2. 회장단 4명	7,400,000	2. 회 의 비(11회)	2,274,800
3. 감사 2명	800,000	3. 인 쇄 비	1,433,200
4. 사무국장 1명	500,000	4. 설계측량비	1,116,180
5. 지파회장 12명	10,600,000	5. 통 신 비	565,590
6. 파종회 12파	29,400,000	6. 교통비 및 행사비	6,252,100
7. 이사 34명 (지역종친회장 3명)	9,960,000	7. 접 대 비	840,600
8. 소문중 53중중 문영공중중	38,600,000 30,000,000	8. 소모품비	352,100
9. 지역종친회 17지역	16,300,000	9. 사 례 비	300,000
10. 특별찬조 95명	35,650,000	10. 현금잔액	48,941,220
11. 소액찬조 255명	14,400,000		
13. 예금이자	1,635,790		
計	201,075,790		201,075,790

會長團 및 忠烈公齋室 重建各派推進委員長 會議 開催

지난 9월 14일 金曜日 그간 忠烈公齋室重建工事が 차질없이 進行되어 竣工을 앞두고 當面한 과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會長團 및 各派 推進委員長 會議를 開催하였다.

議案 1. 忠烈公齋실기금수입 및 지출현황보고
2. 공사진행, 경과 및 감독상황보고
3. 재실현판에 관한 건
4. 기타사항

이날 會議에는 在華顧問께서 參席하시어 좋은 意見을 많이 제시 해주셨다. 會議內容은 다음과 같다.

會議內容 1. 忠烈公 齋실 증건기금수입 및 지출현황은 별표와 같다.
2. 공사진행경과 및 감독사항보고는 監督委員長 聲秀氏께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공사감독 사항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공사도중 장마가 와서 석가래 및 재목이 비에 젖어 퇴색이 될까 걱정이 되었으나 사전에 방비를 한 관계로 다행히 비에 젖지 않았으며 한가지 불미스러웠던 것은 속 주춧돌이 조금 얇아 주춧돌 밑을 시멘트로 돌아 놓았던 것을 새로 교체하느라 공사가 조금 지연되었던 일이었으며, 기와 공사에 있어 한번에 평탄하게 되지 않아 재시공하여 완벽하게 본체 기와공사를 마쳤음을 보고 하였다.

다음으로 현판 제작에 관한 협의에 들어가 昌會副會長이 飲水齋를 陵洞齋舍로 改名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는데 그 뜻은 이러하였다. 능동이란 고을 이름이 붙게된 것은 우리 忠烈公 할아버지의 묘소가 모셔져 있기에 능동이란 지명이 붙은 것이기 때문에 능동 재사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종원들의 의견을 따라 할 것임으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들을 하시어 중론을 따라 정해 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在華顧問께서 飲水齋에 對한 意義를 說明하고 參席者 個個의 意見을 물었다. 참석자 전원이 옛것대로 하는것이 좋다고 하여 飲水齋로 할 것을 決議하고 다음으로 上樑文에 對한 協議가 있었는데 在華顧問께서 上樑文도 飲水齋重建上樑文이라 해야 맞당하다고 제의하여 그렇게 하는 것을 전원 찬성하여 그대로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글씨도 옛현판 글씨를 확대 복사하여 현판을 새기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竣工式 준비 사항에 들어가 몇가지 제시를 함에 있어 이는 집행부에 위임할 것을 회장님이 제청하여 그렇게하기로 결의하고 하오 1시에 산회하였다.

파 별 헌 성 금 내 역

2001. 10. 15

지 파		지 역 종 친 회	
1. 익원공	53,680,000	1. 대구종친회	4,000,000
문영공	30,000,000	2. 부산경남종친회	3,000,000
2. 문온공	21,090,000	3. 용인종친회	2,000,000
3. 안렴사공	20,230,000	4. 청주시동근회	1,000,000
4. 제학공	14,620,000	5. 사천김씨 영인	1,000,000
5. 도평의공	8,610,000	6. 괴산군종친회	1,000,000
6. 군사공	6,980,000	7. 인천광역시종친회	1,000,000
7. 개성윤공	4,300,000	8. 무명	1,000,000
8. 서운관정공	4,300,000	9. 의정부,양주,동두천중중	500,000
9. 전서공	3,440,000	10.대전종친회	500,000
10. 대호군공	3,100,000	11. 대전종친회(청년회)	500,000
11. 밀직사공	3,000,000	12. 안동시중중	500,000
12. 정의공	2,500,000	13. 청주종친회	500,000
13. 판삼사공	2,400,000	14. 증평종친회	500,000
14. 부사공	2,390,000	15. 동친회	500,000
15. 안정공	500,000	16. 당진군중중	300,000
		17. 아산시중중	200,000
		18. 논산시중중	200,000
		19. 안양지구중중	100,000
계	181,140,000	계	18,300,000
계		199,440,000	

飲水齋 竣工式 公告

2000年 3月30日 各派會長과 會長團 會議를 開催하여 齋室重建推進委員會를 構成하고 2000년 10월 30일 契約을 締結한지 1年余를 걸쳐 工事が完了되어 다음과 같이 竣工式을 舉行하오니 全國宗親께서는 많이 參席하시어 우리 安東金門의 새로운 歷史의 장을 다같이 祝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竣工式:日時 2001년 11월 22일(음) 10월 8일 午後 2時
•場 所:安東市 綠轉面 竹松洞 忠烈公齋室飲水齋廣場
2001년 11월 1일
安東金氏大宗會 會長 金相昨 追記. 齋室竣工式 다음날 할아버지 할머니 時享을 奉行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翼元公墓所 文化財 指定 告由祭 奉行

지난 9월 5일 翼元公派宗會는 翼元公諱士衡의 墓所가 文化財로 指定되었음을 告하는 告由祭를 百余名의 後孫과 安東金氏大宗會 任員 多數가 參席하여 派宗會長 洙栢氏의 獻酌으로 告由祭를 奉行하였다. 이날 平山申氏 祭禮公과 회장과 임원이 참석하고 慶祝 花環까지 증정해 주어 더욱 감사하였다. 이에 익원공 묘소 문화재 지정에 관한 경과와 士衡의 略史를 다음과 같이 略記해 본다.

- 2000. 10. 21 익원공파종회 회장단 회의에서 익원공묘소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기로 의결.
- 10. 31 적격서류를 작성 구비 문화재 지정 신청서를 양평군 문화관광과에 제출.
- 12. 20 양평군 문화관광과 담당관이 묘소 자료 답사.
- 12. 6 익원공 영정을 고창종가사당에서 목왕리 낙포재로 이송 봉환
- 12. 10 양평군 문화관광과 담당관이 2차 묘소 답사.
- 2001. 3. 16 경기도 문화재 위원회 위원 2명과 경기도청 문화재 담당관 2명과 양평군 문화관광과 담당관 2명이 익원공 묘소를 답사.
- 6. 19 경기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경기도 문화재 묘소자료 제107호로 지정.
- 9. 5 안동김씨 익원공 묘소 문화재 지정고유제 봉행.

상락 부원군 김사형의 졸기
태종 7년 7월 30일 상락 부원군(上

洛府院君) 김사형(金士衡)이 졸(卒)하였다. 김사형의 자(字)는 평보(平甫)인데, 안동부(安東府) 사람이다. 대대로 귀하고 현달하여, 고조(高祖) 김방경(金方慶)은 첨의 중찬(僉議中贊) 상락공(上洛公)으로서, 문무 겸전의 재주가 있어 당시의 어진 재상이었고, 조부(祖父) 김영후(金永煦)는 첨의 정승(僉議政丞) 상락후(上洛侯)였다.

김사형은 젊어서 화요직(華要職)을 두루 거쳤으나, 이르는 데마다 직책을 잘 수행하였다. 무진년 가을에 태상왕이 국사를 담당하여 서정(庶政)을 일신하고 대신을 나누어 보내 각 지방을 전제(專制)하게 하였을 때, 김사형은 교주 강릉도(交州江陵道) 도 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가 되어 부내(部內)를 잘 다스렸다. 경오년에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로서 대사헌(大司憲)을 겸하였고, 조금 뒤에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로 승진하였다. 대헌(臺憲)에 있는 지 일년이 넘었는데 조정(朝廷)이 숙연(肅然)하여졌었다. 여러 번 전직(轉職)하여 삼사 좌사(三司左士)가 되었다가, 임신년 7월에 여러 장수·재상들과 더불어 태상왕을 추대하여, 문하시랑찬성사(門下侍郎贊成事) 겸 판사서사(判司瑞司事), 겸 병조 전서(兵曹典書), 응양위 상장군(鷹揚衛上將軍)에 승진하고, 일등 공신(一等功臣)에 녹훈(錄勳)되어 분의 좌명 개국 공신(奮義佐命開國功臣)의 칭호를 받았다. 12월에 문하우시중(門下右侍中)에 제수되고 상락백(上洛伯)에 봉작(封爵)되어, 식읍(食邑) 1천

호에 식실봉(食實封) 3백 호(戶)를 받았다. 정축년에 겸 판사헌부사(判司憲府事)를 제수받았다.

무인년의 변란에 김사형이 조준(趙遵)과 함께 대궐에 나가 백관을 거느리고 적장(嫡長)을 세워 사자(嗣子)를 삼을 것을 청하였다. 상왕(上王)이 이미 내선(內禪)을 받으니, 녹공(錄功)이 또 1등이 되어 공신의 호를 더하기를, '동덕정난정사(同德靖亂定事)'라 하였다. 건문 황제(建文皇帝)의 등극 때에 중국에 들어가 하례하였다. 기묘년 12월에 스스로 성만(盛滿)하다고 진달(進達)하여 여러번 직임을 그만두기를 비니, 상왕이 오랫동안 허락하였다. 김사형이 조준과 더불어 8년 동안 함께 정승노릇을 하였는데, 조준은 강직하고 과감하여 거리낌 없이 국정(國政)을 전단(專斷)하고, 김사형은 관대하고 진요한 것으로 이를 보충하여 앉아서 묘당(廟堂)을 진압하니, 물의가 의중(依重)하였다. 주상이 즉위하자, 신사년 3월에 다시 좌정승(左政丞)이 되었다가, 임오년 10월에 사임하고, 영사평부사(領司平府事)가 된지 달포가 지나서 부원군(府院君)이 되어 사제(私第)로 은퇴하였다.

김사형은 깊고 침착하여 지혜가 있었고, 조용하고 중후하여 말이 적었으며, 속으로 남에게 숨기는 것이 없고, 밖으로 남에게 모나는 것이 없었다. 재산을 경영하지 않고 성색(聲色)을 좋아하지 않아서, 처음 벼슬할 때부터 운명할 때까지 한번도 탄핵을

당하지 않았으니, 시작도 잘하고 마지막을 좋게 마친 것이 이와 비교할 만한 이가 드물다. 졸(卒)한 나이가 67세이다. 조회를 3일 정지하고, 좌부대언(左副代言) 윤수(尹須)를 보내어 빈소에 제사하고, 시호를 익원공(翼元公)이라 하였다. 두 아들은 김승(金陞)과 김육(金陸)이다.

상락백 김사형의 아내 마한국 대부인 박씨에게 제사를 하사하다.

임금이 환관을 보내어 상락백(上洛伯) 김사형(金士衡)의 아내 마한 국대부인(馬韓國大夫人) 박씨에게 제사를 하사하였는데, 그 제문의 대략은, "선정(先正)이 정성을 다하여 공이 사직에 있으므로, 국가에서 예절을 도맡게 하여 은혜가 규문(閨門)에 미치노라. 오직 그대 박씨는 천성이 온유하고 조행이 숙신(淑慎)하여, 그 원로를 도와 작(爵)이 명부(命婦)가 되었더니, 갑자기 부음을 들으니, 상심되고, 간절함이 배나 간절하여, 이에 하치않는 제물로 사람을 보내어 세유(總帷) 앞에 전(奠)드려서 보통 법식보다 넉넉하게 하여 그것으로 정숙한 혼을 위로하노라."

고 하였다. 대신의 아내가 죽어서 사제를 하사한 일이 없었으나, 하운과 김사형은 국가에 훈공이 있었다 하여, 특별히 사제한 것이었다.

태종7년9월13일 김사형의 빈소에 친히 조문하다.

김사형(金士衡)의 빈소(殯所)에 침림(親臨)하여, 악차(輓次)에 나아가 주상(主喪)하는 손자 김종준(金宗浚)에게 명하여 치제(致祭)하고 돌아왔다.

扶餘 柳村 世阡碑 建立



扶餘 柳村이라고 함은 翼元公의 五代孫 掌令公 諱湜께서 中宗朝에 권세를 갖은 간신들의 간교함을 陳疏하고 下鄉하여 不復仕한 清白한 선비의 後孫들이 近五百年을 扶餘邑 北部 三個里에 三百余 世帶가 할아버지의 尊敎를 따라 살아온 大集姓村이다.

이토록 오랫동안 마음 비우고 살아온 것도 또한 할아버지의 清白한 뜻을 흐려질까 함에서 표시없이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태가 바뀌어 생활의 형태가 변함에 따라 하나 둘씩 故鄉을 버리고 生業을 따라 떠나니 이 集姓村도 흐트러 지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남아있는 後孫들이 이대로 가면 그 발자취가 없어 질까 두려움이 앞서 後代들에게 五百年 歷史를 일깨워 주고자 柳村 靑壯年會에서

發議하여 安東金氏 集姓村 碑를 동명을 따 버드랭이(柳村) 安東金氏集姓村이라 새겨 公州에서 扶餘로 가는 國道邊 마을 입구에 謹設하였다.

忠烈公 齋室을 陵洞齋舍라 함이 不當한 理由

安東市西後面城谷洞天登山下에 安東權氏 始祖인 權幸의 墓所와 齋室이 있다. 그 齋室의 名稱이 陵洞齋舍로 하였는데 이 齋舍가 孝宗4年(1653年) 癸巳年에 創建한 오래된 齋舍이다. 그러나 우리 忠烈公 할아버지 齋室은 지금부터 약 70년전에 세워졌으니 지금 陵洞齋舍라고 한다면 한 고을에 같은 이름의 재사가 두개가 되어 후

손들이 착오를 일으킬수 있는 일이며 또 權幸의 齋室名을 본받은 꼴이 된다. 그런 연유도 있으나 옛 어른들께서 하신 일을 후손들이 자꾸 고쳐 놓으면 우리 역사가 흐트러져 올바른 가치가 없어진다고 본다. 그러므로 飲水齋로 영원토록 지켜 나아감을 제청하는 바이다.

註. 新羅金氏2000年史 915쪽에서발취

韓國唯一의 綜合藝術의 殿堂



本社 社屋 全景

族譜 出版의 元祖

回想社 6大 特徵

1. 創立 47年 歷史와 全國族譜 90%以上을 出版한 實績을 자랑하는 族譜界의 元祖
2. 컴퓨터로 迅速, 正確한 電子組版으로, 族譜 出版界의 一大革新
3. 春田體(漢文47,163字)開發 및 族譜프로그램으로 모든 辭字 完全解決
4. 編輯, 淨書, 出版, 印刷, 製冊등 모든 工程을 同一工場에서 一貫作業을 할 수 있는 全國 第一의 綜合工場.
5. 原稿에 誤謬가 있을시 組版前 即時 發見하는 30餘年間 勤續한 技能者 多數 確保.
6. 1,000餘坪 以上の 넓은 倉庫를 頒帙完了에 까지 無料로 便宜提供.

*컴퓨터만 있으면 索引을 擧하여 派, 世, 代를 檢索할 수 있는 CD를 製作하여 드립니다. (既 發刊된 族譜도 CD製作)

回想社 서울支社 移轉

서울地域에서 族譜編輯 및 出版을 推進中인 門中の 便宜를 爲하여 本社에서는 서울支社를 安하고 快適한 곳으로 移轉하여 各 門中の 收單, 淨書, 編輯, 校正에 이르기까지 모든 便宜를 서울支社에서 提供코저 하오니 많은 聲援과 利用있으시기 바랍니다.



서울支社 略圖

*지하철 5호선 마포역 하차 4번 출입구로 나오셔서 마포대교 옆 강변한신코아 1412호입니다.

族譜, 古書 回想社 出版, 製冊

본사: 大田廣域市 東區 中洞 47-4

電話(042)253-9881~3 Fax(042)253-9891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50번지

지사: 강변 한신코아 오피스텔 1412호

전화(02) 718-9881 Fax(02) 718-9882

총렬공 재사 중건에 적극적인 헌성을 감사드립니다.

재사중건 기금 헌금자 (2001. 7. 24 ~ 10. 9)

2001. 7. 24 이전 計167,870,000원

1. 군사공파 (360,000원)	
鎮 默	300,000
재 봉	30,000
재 춘	30,000
2. 전서공파(1,300,000원)	
根 成	1,000,000
順 會	300,000
3. 부사공파 (500,000원)	
철원 중중	500,000
4. 문은공파 (1,730,000원)	
炯 長	500,000
참의공계 동곡중중	300,000
在 焯	300,000
榮 潤	300,000
보	300,000
재 명	30,000
5. 도평의공파 (1,110,000원)	
時 默	1,000,000
태 완	50,000
진 수	30,000
춘 식	30,000

6. 제학공파 (30,000원)	
상 필	30,000
7. 안림사공파 (650,000원)	
鎰 會	300,000
善 會	300,000
도 회	50,000
8. 익원공파 (5,390,000원)	
합열공손연기내관중중	500,000
좌랑공과고창군중친회	500,000
좌랑공과중중친회	500,000
泰 振	1,000,000
允 默	300,000
東 植	300,000
恩 會	300,000
鏞 濤	300,000
成 鉉	300,000
準 燁	300,000
泰 鎬	200,000
호 식	100,000
在 憲	100,000
在 東	100,000
병 국	100,000
수 은	100,000

容 鎬	100,000
琪 會	50,000
寬 會	50,000
光 會	50,000
용 구	30,000
재 복	30,000
泰 鍾	20,000
泰 龍	20,000
영 두	20,000
9. 문영공중중(30,000,000원)	
문영공중회	30,000,000
10.지역중친회(4,500,000원)	
부산경남중친회	3,000,000
인천광역시중친회	1,000,000
同 親 會	500,000
11.기타(1,000,000원)	
무 명	1,000,000
계 :	46,570,000
대중회 차입금 반환	15,000,000
總合計	199,440,000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내포제 시조
예능 후계자
연소 현종



김연소는 안림사공 할아버지 후손으로 부여에 정착한지 오래이다. 현재 부여읍 구교리 207번지에 행복에식장과 팔경사진관을 오랫동안 경영하고 있으며, 부여 宗親들과의 親交가 두터워 宗親間에 友宜가 敦篤한 宗人이다. 더욱이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부여사회는 물론 전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翼元公 時享日程 變更通報

翼元公派에서는 今年 翼元公 時享日程을 忠烈公 할아버지 齋室(飲水齋)竣工式 關係로 11월 20일(음10월6일)로 변경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1월 1일
익원공파 會長 洙栢 白

訂正

중보 73호 5쪽 재사중건기금 익원공파 당진군 중중 30만원은 지역중친회 30만원으로 정정합니다.

부음

- 郡事公派 洗馬公宗中會長 彰會賢宗이 老患으로 別世하셨음을 알립니다.
- 翼元公派 前總務部長 在億氏의 室人 原州元氏께서 老患으로 別世하셨음을 알립니다.

것을 버린 것이 현명했다고 적은 글을 본적이 있다. 그것은 바다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탄다. 거기는 독이 있어서 사람의 눈을 멀게하고 마음을 검게한다. 평생토록 그것을 즐기 위해 내려다보고 걷는다면 하늘의 넓음을 알 수 없고 밤은 달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돈보다 귀한게 없고, 더 필요한 것이 없다. 우리 속담에는 “돈만 있으면 개도 멍치지” “돈 없으면 적막강산이요 돈 있으면 금수강산”이라는 말이 전해오고 있다. 삶의 질을 고상하게 문화인답게 유지하고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은 하나같이 그 국민들이 인색하지 않고 절제하며 착고 사소한 일에는 근검하고, 크고 좋은 일에는 과감하게 쓴다고 들었다. 불요불급한 자리에 광내지 않는 사람을 보고 모두들 째째하다고 한다. 째째함도 미덕이 될 수 있다.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며 사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써야 할 자리에는 째째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못하면 범죄와 연결 될 수도 있다. 옛날 어른들도 돈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

억지로 얻으려고 애를 쓰면 장사도 마침내 힘이 없고, 쓰기를 잘하면 어리석은 사람도 이름을 남긴다. 부자는 놀이를 두려워하고 가난한 사람은 얻기를 원하니, 이 세상 많은 사람의 머리털이 이로 인해 희었고, 나라나 개인이나 경제가 어렵다고들 한다. 쓸자리 안 쓸자리를 잘 가려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것이 말과 같이 쉽지 않으니 말이다.

2001. 4. 10
의성군 정곡면 서변리 193
김 창 희

통상회비 납입자 명단 (2001.7.11~10.10)

- 4만원 : 재학(提)
3만원 : 만회(密), 영두(翼), 재철(提)
철회(翼), 봉민(郡), 태근(按)
2만원 : 용일(按), 수탁(翼), 성희(密)
재관(按), 재봉(郡), 태준(按), 재균(按)
명회(翼), 선진(按), 남웅(提), 석수(郡)
태희(提), 만수(提), 경중(翼), 재웅(提)
순회(典), 태익(郡), 태운(翼), 기호(副)
수영(典), 광호(提), 송목(郡), 영희(翼)
도식(翼), 병국(翼), 응목(密), 문희(按)
남식(提), 성식(未)
1만원 : 정길(郡), 수중(翼), 필중(郡)
오천원 : 재희(文)

計 835,000

찬조자 명단

(2001.8.11~10.10)

- 10만원 : 풍일(翼), 형재(翼)
5만원 : 수용(郡), 남웅(提), 안식(翼)
3만원 : 광문(提), 공희(翼), 세용(翼), 우중(翼), 무명1

計 500,000

평생회비 납부자

- 20만원 : 泰振(翼) 서울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향전원에

代表 金在均

783-3166, 783-3167, 780-8477

FAX : 780-8478

자택 : 552-5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
(프린스텔 1층1·2호)

쓸자리에 쓰인 돈은 소중하다



자식이 태어나면 어머니가 위태롭고, 돈이 쌓이면 도둑이 엿보나니 어떠한 기쁨이라도 근심이 아니리오. 가난함은 비용을 아끼는 습관을 가르쳐 주고, 작은 병은 몸을 보전하는 방법을 알게하는 것이니, 어느 근심인들 기쁨이 아니리오. 그러므로 통달한 사람은 '마땅히 순리와 역리를 잘 다스려 기쁨과 근심을 모두 잊느니라' 하였다. 사람의 생활중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감정을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 한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고, 좋은 옷을 보면 입고 싶어한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따르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중국의 전국시대의 말 잘하는 사람 소진(蘇秦)이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가난한 집안에서 밤만 축내고 있을 무렵에 그 형수의 구박이 자심하였다. 후일에 육국(六國)을 유세하고 재상의 자리에 올라 고향에 돌아오자 전일에 구박하던 형수가 맨발로 달려와 온갖 아름다운 말을 늘어놓으며서 예를 어기고 있었다. 수행비서가 형수를 야단치려고 하자 소진이 말하기를, '너무 타하지 말라 그것이 인지상정이다.' 하였다. 그러나 요즘 사회의 우러나는 인정은 풍요와는 반비례하는 모양이다. 배고프고 굶주리던 어느때는 제사지낸 음식복떡 한접시가 담을 넘어 오갔으며 삶은 우거지 한움큼도 이웃과 나누었다. 넉넉하게 사는 지금시대의 생활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 아쉬움이 없는 사회의 상정은 이렇게 변질되어 간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만 군자는 항상 자기를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을 수치로 여기지만 고결한 인물들은 가난을 오히려 깨끗하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담박함을 싫어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오히려 그 맛을 소중히 여긴다. 세상 사람들은 냉철하다고 여기는 것도 여유 있고 맛있는 사람에게는 그 침착함을 보배롭게 생각한다. 소박한 삶을 간구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뜻있는 사람들은 그를 참고 견디는 미덕이 있다. 다만 군자의 어리석음이란 잘난체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리에 밝은 명철한 사람이 보거나, 시정의 평범한 사람이 보거나,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기 마련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어도 악덕이 미덕으로 변할 수 없고 미덕이 또

한 악덕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다.

기를 쓰고 벌어왔자 저승길에는 노자도 없는 것이 인생임을 알지만 모두들 돈을 귀하게 여기는 것 또한 평범한 진리이다. 선인들은 뜻을 기르는 교양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음 네가지를 적고 있다. 서적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책상자가 있어야 하고, 아름다운 벗이 찾아올때 차를 끓일 탕기가 있어야 하고, 울적한 심회를 달랠 수 있는 거문고 한체가 있어야 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살필 때 타고 다닐 나귀 한마리가 필요하다고 설파 하였다.

이러한 청빈의 가정에 넉넉한 재물이 있다고 할수는 없다. 하지만 위의 네가지를 불편 없이 운영하려고 한다면 시체말로 중산층은 되어야 할 것이다. 누에는 늘어가며 고치를 만들건만 제 몸은 가리지 못하고, 꿀벌은 굶어가며 꿀을 모아다 마침내 남의 손에 돌아가네. 늘어가며 집안 걱정하는 사람 깨달을 지어다. 두 벌레의 헛되이 신고하는 것을, 이는 선비들이 즐겨읽던 백거이(白居易)의 자경시이다. 하나같이 돈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내용들이다. 자고로 아버지가 전해주는 돈도 자식은 헤아려본다. 아비 자식 사이에도 확인해 볼만큼 소중한 것이 돈이다. 돈은 누구에게나 부족하다. 다리 밑에서 잠자고 구걸하는 거지에서부터 나라안의 큰 재벌이 사업을 늘리는데 까지 돈의 여유를 느끼는 사람은 없다. 석유가 물처럼 쏟아지는 나라도 부채는 있고, 외환보유고가 높다고 알려진 일본도 국민의 살림은 궁색함을 면치 못한다고 들었다. 퇴직을 앞둔 어느 공무원이 일생에 한번이라도 풍요를 맛보고자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았다. 그는 통장에서 돈을 빼내기도 전에 쓰일 곳이 더 많음을 감지하고 돈은 언제나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소중한 연금이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사라졌지만 아들을 버린것 보다는 그